

정개특위 누가 들어가나... 의원들 경쟁 치열

■ 위원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 내주 첫 회의

선거구 조정 대상 호남이 8곳 의석 수 불이익 우려

중량감 있는 다선의원 참여...야당 간사도 맡아야

여야가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 주에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참여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막판 경쟁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맡게 된다. 단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말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안구백 수석부대표가 위원 선임과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에 최소 2명 이상 참여해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호남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조정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무려 8곳(여수 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광주 동구, 고창·부안,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이나 되기 때문이다.

자칫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지역구 조정에서 호남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국회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호남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되는데다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선의 박주선 의원과 4선의 김성곤 의원은 선거구 조정 대상인데다 3선의 우윤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여기에 3선의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데다 역시 3선의 김동철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국회 산자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정개특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재선의 이윤석 의원은 선거구 조정대상이고 김영록 의원과 장병완 의원은 각각 당 대변인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지역 초선의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선거구 조정에서 호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력과 중량감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정개특위에 참여하거나 야당 간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조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 상하한선 제한에 걸리는 62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 잠룡들 한자리에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그룹 ‘더미래연구소’ 창립식 및 창립기부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한달 넘도록 당직인선 ‘미적’

부대변인·사무부총장 등 최고위원들 ‘자기몫 챙기기’ 신경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한 달이 넘도록 원외 당직자들로 구성되는 부대변인과 사무부총장 인선을 하지 못해 당직 인사를 마무리 못한 채 예를 먹고 있다.

이는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각자 자기 몫을 요구하면서 당직 인선이 꼬인 데 원인이 있다. 보통 5~6명 규모로 꾸리던 사무부총장단을 7명으로, 기존 3명이었던 부대변인을 5명으로 각각 늘렸는데도 치열한 자리다툼 탓에 쉽게 결

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초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사무부총장의 경우 계파별 조율이 이뤄져 이미 임명된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과 김관영 조직사무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 허성무 전 경남도당위원장, 박동규 전 원내대표특보, 송선진 전 총무국장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매듭이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대변인단 인선을 둘러싼 신경전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날 현재 김정현 수석부대변인과 허영일 부대변인의 유임이 유력시되고, 한정우 전 문재인 전대캠프 공보팀장의 부대변인단 합류가 거의 결정된 가운데 남은 두 자리를 놓고 4명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았던 기존 부대변인단(김정현·허영일·김진욱)의 업무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자기 몫으로 한 명씩 추천하려 하면서 비롯됐다. 때문에 선출직 최고

위원에 줄을 제대로 서지 않은 인사들은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낙마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원외 인사들이 너도나도 그럴 듯한 보직을 원하면서 당직 인선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비상근 부대변인직을 신설해 당직의 ‘파이’를 더욱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 몫을 챙겨주고, 총선 전 직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각 시도당 대변인이 중앙당의 비상근 부대변인을 겸직하게 하고, 시도당 대변인 외에도 비상근 부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정의화 의장, 내일 광양서 ‘동서통합지대’ 입법간담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광양시 월드마린센터에서 ‘동서통합지대(섬진강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입법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기초연설을 하고 전 행정부 장관인 이달근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어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의 사회로 광양·순천·여수·남해·하동·사천 등 6개 자치단체장이 참가해 자유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의장을 포함, 김성곤·우윤근·주승용·여상규·이정현



의원, 이정록 전남대 교수, 정병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해 10월30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 초청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호남을 연계한 남해안 개발과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섬진강시’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병완,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회가 함께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 내 ▲ ICT에너지 관련 기관과 광주 도시첨단 산업 단지와의 연계 방안 ▲문화콘텐츠 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의 연계 방안 등 지역전략산업 발전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정의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



았고 조인형 연구위원(광주발전연구원)이 ‘빛가람시대, 지역전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기초발제를 한다.

이어 이인화 교수(조선대학교), 김동섭 상생협력처장(한국전력), 윤종호 문화도시개발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영표 기초실장(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용희 책임연구위원(전남발전연구원)이 ICT, 에너지, 문화 등 각 세부 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주선, ‘선형교육 규제 특별법 시행 성과’ 토론회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선형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형교육예방연구센터 홍선주 연구위원이 학교 현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이현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가 현행법의 한계와 추가 입법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이어 이명호 서울 광남중학교 교장,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김덕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이덕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학교와 교육청 현장 등에서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토론을 했다.

박 의원은 “선형교육규제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적돼온 ‘공교육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더 행복한 우리

서양새마을금고